

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가축사양 및 위생관리 요령

출처: 농식품부, 농촌진흥청

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과 성장이 떨어지고,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, 축사는 시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등 예방위주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

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으면

가축은 호흡기 및 피부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데,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내 열 방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 고온 스트레스는 번식능력 저하, 유량감소,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른 체중감소 및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기기도 합니다.

<외부온도에 따른 가축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증상>

외기 온도	스트레스 정도	증상
23℃ 미만	없음	열과 관련한 문제는 없음
23~25℃	경계	증체량 감소, 유량 감소, 호흡수 증가
26~28℃	위험	증체량 감소, 유량 감소, 스트레스 가중시 폐사위험
28℃ 이상	심각	물 부족, 즉시 가축의 열을 낮추지 않으면 폐사율 증가

고온에 의한 피해는 시원한 환경으로 극복!

- 축사 내 온도 상승 억제: 단열재 부착, 차광막·그늘막 설치 등
- 영양분 보충: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므로 단백질, 비타민 및 광물질 함량이 높은 사료 급여
- 가축위생관리: 밀집된 시설에서는 질병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정사육두수 유지, 농장 안과 밖의 정기 소독 실시

고온 대비 가축관리는 이렇게!



- 환기창이나 통풍창은 넓고 크게 하여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함
- 천장이나 벽면에 열막이 재료를 부착하여 태양열을 차단함
-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



- 기온이 높은 한 낮에(오전 11시 ~오후 2시) 목부위 중심으로 시원한 물을 뿌려줌
- 비타민 광물질을 사료에 섞어 먹이고,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함
- 급수조를 청결히 하고, 시원한 물이 상시 공급되는지 점검

- 돈사 내에 송풍기 또는 대형 선풍기를 설치
- 돈사 천정에는 물안개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무더운 한 낮에 살수
- 돈방당 사육두수를 감소 및 신선한 냉수 충분히 급여
- 돼지는 고온 스트레스에 민감한 가축이므로 돼지의 출하 및 이동, 종모돈의 증부 등은 가급적 서늘한 아침, 저녁에 실시
- 사료는 1주일분의 양을 구입하여 급여하고 변질된 사료는 급여 금지



- 간이계사/오리사 등에는 스티로폼 등을 부착하여 온도상승 방지
- 무더운 한 낮에는 계사/오리사 지붕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 유입방지
- 좁은 곳에 밀식하지 말고 적정 사육밀도 유지하여 줌
- 고온에서는 물 먹는 양이 많아지므로,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
- 배합사료를 오래 보관하면 변질되기 쉬우므로 적은 양을 자주 구입

고온기 가축질병 및 축사 화재예방 요령

가축질병 예방 대책

- 축사는 항상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소독 실시,
- 파리, 모기 퇴치를 위한 살충제 살포 및 방충망 설치
- 축사 지붕 및 주위에 그늘 막을 설치해 주고, 축사 내 환풍기 설치
- 시원한 물과 소금을 충분히 먹이고, 비타민·광물질 등 첨가제 급여
- 전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에 신고하고 방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

축사 화재예방 요령

- 농장 규모에 적절한 전력 사용량 확인 :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 사용량을 변경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전개폐기 작동 확인
- 검정된 전기기구 사용 : 축사 환기를 위한 환풍기, 어린가축의 보온을 위한 보온등 등
- 축사 내외부의 문어발식 전기배선 및 콘센트 사용금지
- 전선·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 청소
- 용량에 맞는 규격전선 사용 및 노후된 전선 교체
- 축사 내 소화기·비상경보기 등 설치
-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사용의 생활화

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위생시험소, 시·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하여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

☎ 1588-4060